

# 우리 사회, 청소년에게 희망인가?

고 성 혜(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 청소년희망학교 교장)

## 1.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사회

IT 강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국력을 모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세계 경제의 총체적인 불안의 여파로 우리 또한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를 슬프게 하는 암울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무려 9건이나 발생했고, 2009년, 2010년에는 성폭력의 위협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생명을 잃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되었다. 2011년에도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과 자살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자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2009년 기준)는 28.4명으로 2위인 헝가리(19.8명)와 3위인 일본(19.4명)보다 현저하게 많고, OECD 평균(11.2명)에도 3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2009년 기준 총 자살사망자는 15,413명으로 2008년의 1만 2,858명에 비해 19.9% 늘어났고, 10년 전인 1989년(3133명)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하루 평균 42.2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4분마다 1명이 자살을 한 것에 해당된다. 2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4.6%가 자살이었고, 30대(34.1%)와 10대(29.5%)에서도 자살이 전체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한창 일을 하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젊은 층의 자살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만, 죽음을 선택한 자에 대한 비난보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아무리 일해도 빈곤층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인 Working Poor층이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청년 실업의 증가 등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열악한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에 처한 이들 중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미래에 대한 암울함,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를 안게 되며 사회불만 세력화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때로는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향해 살상을 하고, 방화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자해와 자살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를 치안부재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흉악한 사건들은 경제 불안과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상실감이 커지는 시대에 절망한 인간의 결과인 듯하여 몸서리치게 되지만,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 사건들이 준 교훈을 망각하며 정부, 국민 또한 폭력성과 잔인성에 내성이 생기고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뿐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소통과 배려, 섬김과 나눔의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소통과 배려는 구호에 그칠 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로 치닫는 듯하다. 인터넷이나 실사회에서 체감하게 되는 사회는 관용의 미덕과는 거리가 멀고, 손해보고는 못사는 사람들의 악에 바친 행동만이 삶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하다. 또한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 진위를 따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쉽게 이야기 하고, ‘아니면 말구’ 라는 식의 무책임한 언행은 어린 아이로부터 기성 세대에 이르기까지 퍼져 있고, 거짓이 횡행하여 불신풜조가 만연해 있다. 돈과 권력 장악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자기이익을 위해서라면 배려는커녕 함부로 빼앗고 공격을 서슴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도 우리는 접한다. 일례로 자동차들은 서로 먼저가려고 빨리 달리고 끼어들고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대고, 보행자의 존재감은 없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은 마치 공부하는 기계처럼 주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어른보다도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 공부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불안감 속에서 일부 아이들은 마음의 병을 얻고, 현실을 도피하면서 컴퓨터 게임 등에 중독된다.

“어른인 아빠보다 왜 더 많은 ‘공부 노동’에 시달려야 하나요?” 2002년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천안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일기장에 남긴 이 말이 지금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사실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아야 할 놀이터에 아이들이 사라진 지 오래고 학원에 가지 않으면 그나마 친구할 아이가 없는 것이 현실인 사회가 되어버렸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 원칙을 중요시하고 조금은 무언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나’만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로 여겨지거나 지혜롭지 못하다거나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란, 분명 무언가 크게 벗어나고 있는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 2. 위기의 청소년

이렇게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청소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학교와 집을 오가며 공부를 해내느라 어깨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가하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이 있다. 물론 당차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무기력하고 목표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신나고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꿈을 실천해나가기 위한 과정을 밟을 수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학교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가 싫다고 뛰쳐나오거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내몰리는 아이들, 즉 학업 중단에 위협에 처한 학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학업에의 흥미를 상실한 학생들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자포자기적인 태도로 단지 현재를 즐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저 시간 때우기로, 친구 만나는 맛에 학교에 가지만, 학교에서의 자기위치는 매우

초라하다. 수업시간에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 없어 의자에 앉아있기조차 괴롭고, 무료한 시간의 돌과구로 공연히 분위기 흐리는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그저 우스운 아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과 힘겨루기를 한다. 입만 열고 욕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집요하게 괴롭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며, 당구장, 노래방, PC방을 전전궁궁하면서 노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들 앞에 흥미롭고 새로운 성인의 세계가 펼쳐지는 순간, 건잡을 수 없이 이에 빠져들게 된다. 그것이 위험하고 금지된 행동이고 법의 처벌이 따른다 해도 개의치 않으며 나름 스릴도 느끼고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걱정거리도 잊을 수 있고, 힘도 과시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도 확 풀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주위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여러 보이지만 내부에는 어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분노를 안고 있는 아이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 나쁘다는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아이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이들이 방치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대한 인적 손실이라는 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8년 3월1일~2011년 2월28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193,94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고교생의 학업중단이 절반 넘게 차지했는데, 3년간 102,756명으로 매년 전체 학생 수 대비 1.7%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생의 학업 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3년간 49,082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7.8%를 차지했고, 다음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 27,512명으로 26.8%, 질병 6,276명, 품행 1,630명 순이다. 특히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17,548명으로 전년대비 14.9% 늘었고 2008년과 비교하면 무려 59%나 증가해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8,40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5,505건, 부산 2,280건, 경남 2,082건, 인천 1,979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대전으로 1,234명에서 1,394명으로 13% 가까이 증가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수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위기의 청소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은 모두 3,4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의 2,322명보다 48%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중 청소년 강력범 수 역시 1,535명에 달하고 있어 좀처럼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새 강력범죄 증감 현황을 보면 강간범이 2008년 464명에서 지난해 2,029명으로 2년 사이에 337%나 폭증했다. 청소년들이 강간과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최근 2년 새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살인범도 19명에서 23명으로 21% 늘었다. 강도와 방화는 25%, 24% 감소했다.

지난해 청소년 피의자는 총 94,862명으로 2년 전과 대비해 다행히 23% 정도 감소세를 보였다. 청소년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 내용은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청소년 피의자 중 절도범은 39.0%, 폭력범 25.9%,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은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붙잡힌 소년범 중 재범이 33,638명으로 재범 비중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뿐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의 분포에서도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대상 정신건강검진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들 중 13.5%가 정밀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동 정서 및 행동발달 검사지(CPSQ)’를, 중·고등학생에게는 ‘청소년 정서 및 행동발달 검사지(AMPQ-II)’ 등의 전문 조사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의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교우관계, 품행, 학습과 인터넷 중독, 자살충동 등 정서와 행동문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사하고 있다. 2009년에 검사받은 학생의 17%, 2010년 검사를 받은 학생의 12.8%, 2011년에 검사받은 학생의 10.6%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 학급 35명 기준으로 할 경우 3~4명 정도가 부적응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수치이다.

다수가 학업을 중단하려 하거나 비행에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이 비행의 유혹에서 갈등하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주위 환경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불안과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말해 주듯이 각 가정의 자녀는 1.2명에 불과하여, 요즘의 청소년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자란 왕자와 공주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예절 점수는 낙제 점수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다루기 힘들어 한다.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 의하면, 이런 아이들은 매사 잘 따져 묻고 선생님에게조차 노골적으로 반항하거나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특히 자기가 하기 싫거나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상황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해 특정 행동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때에 교권을 무시하는 반항행동을 격하게 표출하여 교사를 당황하게 만든다. 때로는 여러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시비를 걸어 교사와의 정면대결을 하고 교실을 장악하려는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해가 갈수록 통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 게다가 사람의 약점을 악용하고 약자를 더욱 괴롭히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한다는 점, 자식을 위해서라는 맹목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들의 주장 또한 날로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현장의 한 일면이기도 하다.

어느 교사가 경험한 바의 예를 들어보겠다. 반복적으로 떠들면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의 몸과 학용품을 건드리고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이 교과서도 준비하지 않은 채 문제행동을 지속하자, 선생님은 말로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좀처럼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앞으로 불렀는데, 의자에 앉아서 ‘왜요?’ 라는 말을 반복하고는 결국 교실을 뛰쳐나가버리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또다른 이야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덩치가 크고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견드리고 귀찮게 해서 선생님이 이를 꾸짖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선생님의 꾸지람에 반성하기는커녕, 분을 삭이지 못한 채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이를 선생님을 향해 뿌렸다.

예전 같으면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모두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털이 보송보송한 아이들에 의해 발생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 3. 그래도 희망이 있다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학교와 방임과 지나친 구속, 갈등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 유해환경의 범람 등 자유분방한 사회는 우리 청소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학업 부진과 학업에 대한 무관심,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존재감도 없고, 특별히 할 것이 없이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당하면서 밖으로 돌게 되고 다양한 문제행동에 노출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원함이나 심리적 상처로 정신과적인 전문치료를 요할 만큼 마음이 아프고 정서적으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고 때로는 조심스럽고,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요한다.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뛰어들다가 제 팔에 꺾여 지쳐버린 사람도 보았고 오히려 상처받은 어른도 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열정 있는 사람이 점차 드물어지고, 교사 개인의 희생으로 이 아이들을 품는 것도 불가능해지면서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버틸 수 있는 자리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꿈을 키워갈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부모의 잘못된 대응은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아이의 행동은 더 악화된다. 또한 한국사회와 문화 속에서 ‘빛나는 부모 역할’은 맹목적인 자식사랑과 자식의 성공에의 집착하는 행동으로 왜곡되고, 동시에 부모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자녀와의 거리감은 커지고 결국 자녀와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청소년기 자녀가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개입은 늦은 감이 있고, 또한 부모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청소년기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적 특성은 어린 시기의 경험, 부모자녀관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당수의 벗어나감은 부모간의 갈등과 폭력으로 초래된 경우가 있고,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문제와 그것의 투사로 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된 것이기에 단순하게 풀어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청소년 자녀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부정적인 대응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가정이 휴식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긴장감이 돌고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아이는 구심점을 잃고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범죄사회학자인 허쉬가 예견했듯이 부모가 평정심을 갖고 아이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줄 수 있다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계발시켜 나간다면, 순간의 방황과 일탈이 있어도 일정시간 후 궤도에 복귀할 것이며, 아이들이 우주의 미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생인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이 희망적인 사고를 하고 우리사회의 인적 자원으로써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또한 교육환경이다. 현행 교육제도에 불만스럽지만 나름 순응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적응하지 못해 학교 밖을 기웃거리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학생도 있다. 이 뿐 아니라 기존의 학교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전적인 태도로 학교와 사회에서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다.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건 간에 모든 학생들은 사회의 위험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들의 학습적 욕구를 수렴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잠재된 가능성을 찾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사고를 하고 따뜻하고 의리 있는 품성을 지닌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교육적 기반 조성 및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눈에 힘이 짝 들어가 어른들이 보아도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 아이들,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학교에 오는 것조차 힘겨운 무기력한 아이들,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나태함을 보이며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투박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 매사에 불만인 듯 구시렁거리면서도 할 것은 하고 따라오는 아이들이지만, 우리의 기다림과 수용 속에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본다. 그들에게도 나름 힘이 있고 강점이 있다. 문제는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그 힘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다지 매력적인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도 여느 아이처럼 남들보다 무언가 잘 하고 싶어 하고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며 자신의 장점을 찾고 싶어 한다. 물론 기존의 학교에서는 이들을 수용하려 들지 않고 이 학생들도 기존의 학교를 거부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학교’와 ‘교육’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들 자신이 꿈꾸는 ‘학교’가 아니고 ‘배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여 자신감이나 자신의 존재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학생을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잠재역량(potential competence) 및 자원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회복력이 있음을 전제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과 배려, 그리고 가능성이 열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작지만 자신의 목표를 찾아가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표정과 언어적 표현 또한 많이 나아지며, 자신의 미래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감을 본다.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은 비단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든, 이웃이든 청소년과 소통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아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일탈의 늪에 빠져 있는 청소년일지

라도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가능하지 않은 것에 연연해하고 안타까워하기 보다는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가능한 대안을 찾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목표를 갖게 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계발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지원해주고 기다려주어야 것이 문제행동 예방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출산화 사회 속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을 지켜가는 방법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거나 현재라고 언급하면서 중시한다고는 주장하나, 진정으로 청소년의 존재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가치와 규범, 규칙을 문화적 코드가 다른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소년 그들이 겪어온 짧지만 어려웠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연민의 눈으로 보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이들이 너무 훌쩍 커져버려서 더 이상 변화되기 힘든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하나씩 풀어주고 자신의 과거와 화해시킬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과 세상을 왜곡되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세상의 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치심과 비난의 문화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문화, 긍정과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우리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청소년의 변화를 두려워하여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